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 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제 120호 2008년 11월



돌담 위 탐스런 감나무가 가을의 풍요를 느끼게 하는 11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14~15)

온 땅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NDEX

2 불평 그만, 감사를 회복하라!
4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라!
6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강원교회)
11 다문화시대, 다문화 가정 보듬어야...



9 | 수청령고개



13 | 리던



▌감사팔찌 캠페인

- 불평 이제 그만! 감사의 생활화로 불평제로에 도전한다 - (시온교회)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 유니티' 의 '윌 보웬' 목사가 2년 전 시작한 〈불평 그만 운동(No Complaints Campaign)〉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오프라 윈프리 쇼와 (미) NBC의 간판 아침프로 '투데이' 등에 이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소개된 데 이어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미 공영 라디오방송 NPR 등도 잇따라 보도했다고 한다.

2006년 7월 성경공부를 이끌다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된 보웬 목사는 우선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21일(3주) 동안 불평이나 비난, 험담 등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겐 자신의 '맹세' 를 잊지 않도록 'Always be thankful!' (항상 감사하라)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고무 재질의 보랏빛 팔찌를 지급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에서 불평이나 비난이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팔찌를 다른 팔목으로 옮긴다. 목표는 21일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팔찌를 풀고 인증서를 주는 의식을 베푼다.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인 지난 7월 초부터 감사팔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팔찌는 '사랑의 교회 정감운동' 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500개를 신청했는데도 모자라서 200개를 추가로 신청했을 만큼 교우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감사팔찌 사용요령은 다음과 같다(정감운동 '감사팔찌 사용요령' 참조).

1. 감사팔찌를 착용하고 생활한다.
2. 입술로 불평이나 짜증의 말을 하면 다른 손목에 바꿔 찬다.
3.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옮겼는지 달력(혹은 다이어리)에 기록해 나간다.
4. 팔찌를 옮기지 않는 '감사의 일주일' 을 목표로 하여 도전한다('감사의 일주일' 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팔찌를 선물하거나 캠페인을 소개한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팔찌 이벤트' 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감사팔찌 소감문 공모와 감사팔찌 사행시(감사팔찌, 불평제로, 감사파워 등) 공모를 통해 성도들이 감사팔찌 캠페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평 불만에 찌든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감사를 생활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감사팔찌를 통해 특별히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되었는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평이 점점 줄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라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불평불만이 너무 만연한 사회로 치닫는 것 같은 염려가 될 때가 많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감사팔찌 캠페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불평제로에 도전하며, 감사를 생활화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 오생락 목사(시온성결교회)

▌감사일기쓰기 및 감사절 봉투만들기

- 감사를 찾고 감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갈릴리교회)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추수와 저장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이 절기를 지키는 현대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 '하나님의 보호' 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다. 단순한 유대인의 절기를 이어받아 절기적인 행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이어 받은 중요한 유산으로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을 되찾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적게는 일 년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절기의 의미를 발전시켜야 한다.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감사나 보호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구원의 감사와 함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영혼의 추수감사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감사절에 대한 몇 가지 목회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감사일기' 를 쓰게 한다. 하루에 세 가지 이상씩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기록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감사 일기를 쓰며 자신에게 감사가 얼마나 메말랐는지 대해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게 된다. 추수감사주일에 한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 모든 분들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공감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 예물봉투를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각자가 고안해서 만들게 하고 잘된 작품은 시상도 하였다. 어떤 분은 밤을 새워가며 깨알 같은 글씨로 감사의 내용들을 아름답게 장식한 분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밖에 감사절 감사대회로 찬양 혹은 칭찬, 감사편지, 감사백일장 등의 잔치를 열어 감사를 표현하도록 돕는다면 감사가 더욱 더 넘쳐나게 될 것이다.

감사가 회복될 때 신앙생활의 감격도 살아나게 된다. 좀 더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감사절을 준비하자.

글. 최영조 목사(갈릴리감리교회, 본보편집위원장)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11기)

'정말 획기적으로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훈련 수료자들의 증언없는 칭소문과 추천이 일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현직 중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초등학생 자기 자녀에게, 종로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곳이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중·고생과 중학 예비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책이고 별기책은 따로 없이 생략으로 '집중적인 훈련' 을 할 때 균형잡힌 영어로서 문법과 독해는 물론 회화가 됩니다.

미라클 체험수기

"현민이기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평정에서 춘천 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날의 영어공부 때문에 고민하던 중 미라클훈련을 받은 지인을 통해 미라클을 소개 받게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과 과외를 했다는데 우리아이는 시골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서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2개월 만자나면 중학교 입학인데 영어준비기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공개설명을 듣는 중 바로 저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택이 적중했구요. 학원이나 과외를 전혀 받지 않은 아이기 미라클 훈련을 딱 3개월 받고 나서 영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 하더라구요. 미라클식으로 하니 학교영어뿐 아니라 영어가 쉽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 방법에 대해 더욱 확신 하더라구요. 물론 이후에도 어떤 형태 든든 영어 시교육은 필지를 않았어요. 지금도영어는 교과서의 문장이 아닌 곳에서 문제가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이도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유지해요 영어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사행 학으로 시간 낭비 하지 않고 곧 바로 훈련을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 남여중 3년 김현민엄마 -

"영어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시작 하여 영어과외를 꾸준히 한 민지는 영어를 아주 잘하고 "영"자라는 말만 나와도 몸서리칠 정도로 영어를 싫어했는데 이번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영어책만 들려고 해요. 그리고 훈련 방법이 들려주는 목사님의 유머한 말씀들을 통해 삶의 모든 자세가 좋아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 백민지 초등학교 3년 엄마 -

"교과서만 겨우 이해할 정도의 영어실력이었던 내가 지금 천문학 관련 원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영어실력이 된 것은 중3때 미라클 훈련을 통해 영어의 근본 원리를 습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 황승환 강원 과고 2년,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 표창 수상 -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영어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어가 너무 쉬웠어요. 친구들이 나 영어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봐요" "어렵게 쉬운 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참석만 했는데 그 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너무나 쉽게 정리가 되구 습득이 되구요. 대강 단어를 끼워 맞추며 독해를 해서 독해를 해놓고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2배이상 빨라졌어요. 별도로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습득이 되니까너무 좋아요" "영회기 들려요" "집에서 영어 도 좀을 했어요" "길 가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생님에서 매일 왕복 5시간 차타고다니면서 훈련 했는데 하루 하루가 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어서 3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수준 있는 완벽한영어구사 능력은완벽한 문법과 독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 문법과 독해 그리고 발음이너무나 상학 8개 습득이 돼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예비 중학생에게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초5년에서 50대 주부까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그러셨겠지만저 역시 학원을 참말이 다녀 봤습니다. 그게 대학 때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 영어의 늪에 빠져 있었네요. 공개설명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마설마 했었습니다. "대강 한계층의 훈련 생을 대리고 어떻게 강의를 하시려나" 하지만 훈련을 하는 날이 하루 하루 지나고 영어 교제가 한장 한장 넘어 갈 때마다 신택에 감사드렸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 훈련생 모두가 만족할만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이 들리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어렵던 문법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배운 문법이 완전히 습득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어떻게 저렇게 바꿔 가며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더라구요. 놀랍지만 정말이랍니다. 간단한 예문도 못 한줄 만들 수 있는 영어실력이 된 것은 중3때 미라클 훈련을 통해 영어의 근본 원리를 습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긴 문장도 한번에 보이고 훈련 하다 보니 어느새 종이진 내 발음에 제가 기특해지고, 일생생활 속에 일을 영어로 말해 보는 습관이 생기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 아닌 언어라는 당연 한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 "기본훈련 단계 까지 수료생이 미국에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묵은 교회를 새롭게 하라!



한국 교회 선교역사 120년, 회복과 부흥을 위해 새로운 전략 필요

오랜 시간동안 흔들림 없이 세계 일류의 명성을 이어가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렸다는 것이다.

한 때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도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걷는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모든 위기와 정체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현재 120세가 넘은 한국 교회는 위기와 정체의 원인을 살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슬퍼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경륜과 경험이 축적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이 노쇠 혹은 노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멈출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조직이나 개인은 정체와 퇴보를 시작한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선교 역사 12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의 경우에도 여러 부분에서 노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개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은 묵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한다. 일견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부분이 있지만 슬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정리해 보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나이 드는 것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묵은 교회를 새롭게 하라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다."라는 명제가 지금의 시대만큼 절실하게 요구된 적이 없었다. 묵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묵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역도 결코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재활성화(Revitalization)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생기를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부흥시키다, 활력을 불어넣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경제 영역에서는 '경기부양'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정부나 국가는 없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어찌할 수 없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일지라도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제대로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침체된 교회의 재활성화 전략

해리 L. 리더 목사(Dr. Harry L. Reeder)는 묵은 교회에 생명력을 심는 전문가이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로 부임했던 교회는 25년의 전통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 때 교인 수가 거의 900명까지 이르고 주일 장년 예배를 4부까지 드리는, 또한 활기 넘치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 그러나 해리 목사가 부임할 당시에는 주일 예배 출석교인의 평균이 50명 미만이었다. 그를 아는 그 누구도 그의 부임을 축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사임할 때 그 교회는 3,0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영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변모해 있었다.

현재 미국 PCA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진 브라이어우드(Briarwood)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해리 목사는 교회 개척 및 침체된 교회의 재활성화에 특별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신학교 및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이끌고 있다.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 한국 땅의 모든 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해 본다.

(국제제자훈련원 리더쉽편지 요약)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11기)

1. 개강일시 : 2009년 1월 5일(월) 오후 6시30분(시간엄수)
2. 기 간 : 1월 5일(월) ~ 2월 3일(화) 해주월화목금 6:40 ~ 10:10 P.M.
   1일 3시간 30분씩 1개월 16일간 총 56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및 교재 : 인트로단계 11기 교재 : friendship control -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
4. 장 소 : '꿈이있는교회' (교통편 : 카톨 22번버스)
5. 본훈련소는
   ① 초,5,6년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 **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분**,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③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 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기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⑤ **방학 때는 경험자들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평택 등)에서도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⑥ **영어의 근본 핵심을 동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문만 아니라 영어실력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빠른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나 영어에 자신감을없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 12월 24일(수)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 264-0691, 010-3510-0691, 010-4917-0688)
7. 공개 설명회 및 체험사례발표 : 1차(11월 22일(토)) / 2차(12월 13일(토)) / 3차(12월 20일(토)) 오후5시 ~ 6시30분 ※ 시간엄수 요망.

※ 훈련생 자격 : ① 기독교 신앙인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의 소유자, ② 본 훈련원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3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 (적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초, 중생을 위한 영어 2개월 완성
미라클 영어 특별 할인
1월 5일(월)부터 매주 월~금,
오전 9:00 ~ 12:30)

"영어의 눈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열렸습니다." (미라클제일수기)

저는 "4개월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온다"라며 당심하시는 이해의 권유로 미라클 영어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어가 술술 ~~ !"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10년 이상 영어공부를 해도 이 수준인데 4개월 만에 가능할까" 의심이 생겼지만 결국 공개설명회를 참석하고 체험자들의 체험담과 영어방법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훈련에 참가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한 지 며칠이 지나지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니 2개월 만에 '이 미라클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높고 큰 탑을 완성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벽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탑을 쌓는 쉽고 빠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므로 엄아든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응용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벽돌들을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무작위의 벽돌들만 주고 "탑은 본인이알아서 쌓는 것입니다" 하고 마는 기존 영어교육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어학연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국내에서 영어를 어려 준비하기 위해 오전에 일주일에 두번 입대일 영어과외를 받았고 지넉에는 미라클 영어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교가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호주에서 7년 계상던 분이라 영어실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회화 문장 전체의 뜻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용해야 문장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문장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말함으로 응용시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 문장을 이렇게 내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운 문장을 힘들게 외울 필요가 없이 스스로 알아듣고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지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실제로 상당수의 5, 6학년 중 고등학도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더 비싼 돈을 내며 영어과외를 하는 것보다 지원한 비용으로 훨씬 효과가 있는 미라클 훈련을 전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생들 보며 설마 설마 하던 것이 정말 해게도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며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돌아서 가족끼리 시험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일대 외국인이 앞에 미라클을 시작한 지 일마 안 되었을 때 내게 "내가 전보다훨씬 더 내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영어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쉽게 영어의 탑을 쌓아 올려 주시는데 탑의 기초인 머릿돌을 처음 제우는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석만 하면 4개월 후면 영어에는 견고한 탑을 완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Miracle(기적)입니다.

- 고우래강대 영어영문과 (1년 후학생) -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라!

참여자: 김준환, 김두철, 김민경, 김민호, 김현정, 전미선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00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9%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세계 인구의 50%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대한 인구 이동으로 발전되어 가는 도시들은 새로운 기독교 선교의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도시화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실업문제와 범죄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들과 더불어 많은 도시빈곤층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어두움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 도시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춘천의 영적변화를 위해 전략적 중보기도운동을 제안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보자.

한 도시를 영적인 시각으로 도해하여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 김 준 환 대표간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도시의 변화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것이다.

도시를 섬기기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도시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만드시고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을 깨달아야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사단은 도시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한다. 사단이 속여서 감추어놓은 것을 바로 찾아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도해의 목적이다.

□ 전 미 선 간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 유업으로 주신 도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적도해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춘천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전 미 선 간사



춘천의 옛 지명들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선사시대의 유적이 곳곳(중도)에 남아있는 춘천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다. 춘천의 신북읍 발산리와 천전리 일대에서 부족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맥국(貊國)으로 전해진다. 맥(貊)의 뜻은 춘천의 주변 땅이름과 비교를 해보면 "아침", "새", "샘"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몸속에 뛰는 에너지의 힘의 맥박이라는 의미와 '아침과 새벽'의 의미가 있다. 산천리 쪽 땅 이름은 "새밑", '샘두리', '천전리의 샘밭', '유포리의 아침못' 등 새와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다. 또 새벽을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새'라는 공통성을 포함해 '샘'이라는 뜻은 새롭다는 뜻보다는 '솟아오른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샘물이라는 어원과 "밝음이 솟아나는 개명"이라는 한자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보건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획하신 춘천의 정체성은 밝음과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춘천에는 소양강과 소양댐이 있다. 생명이 근원인 물이 흘러 대한민국 온 도시 안에 흘러가는 것처럼 이 도시에서 시작한 영적인 변화와 생명 그리고 부흥의 바람은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김 연 정 간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춘천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60:1) **춘천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옛 지명이 맥국으로써 밝음이 솟아나는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도시**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춘천의 정체성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춘천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다. 이 장점들이 활용되고 풀어지도록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

춘천의 영적 정체성이 왜곡 되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김 민 호 간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춘천영적지도와 책자를 위해 주로 역사적인 면을 연구, 조사했다. 조사하면서 놀란 점이 있다. 보통 춘천지역하면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 사건 속에 드러난 춘천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몽고침입 시에도 매우 강렬하게 투쟁하였고, 항일투쟁에 있어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또한 6.25전쟁 때도 '춘천대첩'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거둘 정도로 강인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런데 6.25전쟁이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교통이나 통신 등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패배적이고 소극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진 것 같다. **근래에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정서가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

□ 김 두 철 간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춘천지역의 **소극적인 정서** 혹은 더 나아가 무기력한 모습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라고 하는 자연 지리적 여건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적인 원인이다. 한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



영적지도를 활용한 전략적 중보기도운동을 모색한다.



진행지: 정재호 사진: 김미경

하였는데 봉의산 주변에는 사찰 앞에 설치했던 건축물로서 그 주변지역이 사찰이라는 신성한 영역을 표시하는 역할의 당간지주의 터가 발견된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봉의산과 소양대교 주변에는 많은 피 흘림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러한 피 흘림의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도시의 정체성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 **김 준 완 간사**

춘천에서 3년째 사역하고 있다. 사역하면서 강하게 느꼈던 영적인 정서는 무기력과 안주함이었다. 이러한 무기력과 안주하려는 경향은 도시전체의 영적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다양한 영적인 역사들이 시작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모를 답답함이 있다.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춘천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크고 강한 영적인 역동성을 보여주신다. 실례로 춘천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그리고 **무기력과 안주하려고 하는 정서가 지배적인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성시화운동이 시작되고 확산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영적 역동성이 표출된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 **김 민 경 간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춘천지역을 종교별, 업종별 조사를 하면서 종교적으로 볼 때 불교나 철학원보다 교회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교회수보다도 술집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남산면(강촌) 지역에 술집과 모텔이 많았다. 또한 피 흘림의 아픔이 있었던 소낙동, 근화동 지역에도 술집과 함께 모텔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에 이런 지역에서 현저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교회 수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도시를 영적으로 도해를 해보면 **한 도시 안에서 유난히 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다. 이유는 바로 사단이 그 지역에 들어와 배후에서 활동하기 때문**인데 사단이 역사하도록 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피 흘림이다. **춘천의 영적변화를 위해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선제공격기도가 필요**하다.

춘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 **김 준 완 간사**

춘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밝음과 생명은 춘천지역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첨단 바이오산업이다.

이것은 밝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정서를 잘 담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지역을 위한 예수전도단 중보기도세미나에서 최용준 형제(동북아전략연구소)가 선포한 말씀이 기억난다. **"춘천은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도시가 될 것이다! 악한 영으로 인해 가려진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생명이 흐르는 도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 **김 연 정 간사**

춘천에서 특히 기도해야 지역들은 피 흘림이 있었던 지역이다. 특히 근화동지역을 위해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근화동은 춘천에서 고려시대부터 6.25전쟁까지 전쟁의 격전지로써 역사적으로도 반복적인 피 흘림이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봉의산 주변과 소양정이 위치한 소양대교주변도 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지역이다. **땅 밟기 기도를 통해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해야 한다.**

□ **정 재 오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춘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가이드 책자와 영적지도를 위해 많은 시간 연구와 조사 그리고 기도의 사역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춘천에 효과적이고도 전략적인 중보기도운동이 활성화되어 생명이 흐르는 도시로서의 마지막 세기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서 쓰임을 받는 날을 기대해 본다.

춘천 기도정보 가이드 소책자 · 영적지도

▶ **소책자 1권** : 1,000원(60페이지 분량)
소책자를 구입하면 영적지도는 무료로 제공

▶ **계좌번호** : 신협 04073-12-009998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문 의** : 033)256-1260

※춘천영적지도는 춘천지역의 교회 조사와 표시를 위한 지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다만 위치 표시를 위해 몇몇 교회를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강원교회는 지난 1986년 10월에 부안초등학교 앞 지하실 14평을 빌어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이다.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신바 『내 양을 먹이라』는 모토에 따라 초기부터 노인복지 프로그램인 『베다니사역』을 시작하였고, 교회재정의 30%를 선교, 전도비로 지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강원교회이다. 차덕수 목사와 권순남 사모를 중심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강원침례교회(차덕수 목사)편입니다

차덕수 목사



차 목사는 전라도 구례가 고향이다. 전형적인 불교가정에서 출생한 차 목사는 태어나면서 부터 사찰의 음식을 먹으며 자라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자주 절에 머물며 부처님을 섬겼으며, 차 목사는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에 동화되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중 가정의 변화는 어머니의 불치병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를 쓰던 중 유일하게 가정에서 교회를 출석하던 누님을 따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가정복음화의 시작이었다. 부처님께 부르짖어도, 무당을 찾아 굿을 해도 병세의 차도가 없었고, '예수 귀신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건강을 회복, 현재 82세이심에도 여전히 농사를 직접 지으실 정도로 건강하시다고 한다. 진정 주님의 은혜요 신앙승리가 아닐 수 없다. 차 목사의 고향마을은 그 뒤로 완전히 변화되어 마을 주민의 60%이상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차 목사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대학진학과 함께 청년시절 선교단체인 대학생선교회(CCC)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학생대표를 맡아 대학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다가 목회에 소명을 받아 침례신학대학교에 편입, 평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 신학교 졸업 후 용인 중앙침례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던 차덕수 목사는 별반 연고가 없던 춘천으로 내려와 부안초등학교 앞 지하실 14평을 빌어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지하실이라 늘 바닥이 젖어있고, 교회 의자도 없어 방석위에서 불과 몇 명이 예배드리던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주님, 내 양을 치고 싶습니다. 적은 무리라도 주님이 직접 맡겨주신 양 무리를 치고 싶습니다' 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 차 목사는 돌이켜보면 매우 감사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차 목사가 지금의 권순남 사모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차 목사는 결혼에 대한 꿈이 거창(?)하여 배우자를 향한 100여 가지가 넘는 기도제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살 연상인 권순남 사모를 만나고 나서 그 100여 가지의 기도제목이 적힌 목록을 다 찢어버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결혼에 이르게 된다. 권순남 사모의 가장 큰 매력은 동역자로서 주님의 지상최대명령인 제자훈련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가난한 전도사시절의 환경과 성도들을 넉넉히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회상한다.

강원교회

강원교회는 그 후 부안초등학교 앞에서 강원사대부고 인근 50여 평의 건물을 빌어 이전한다. 3년여를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지금의 비전을 잉태하는 시기로 삼아주셨다. 얼마간의 전세보증금 외에는 이전, 건축비용이 없었던 강원교회는 장기영 집사(현 강원일보 논설위원)를 비롯한 몇몇 지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지금의 동내면 거두리로 이전한 것이 1994년이었다. 개척 초기 '350평 이상의 땅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이다. 현재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 900여 평의 대지위에 그 거룩한 꿈이 익어가는 중이다.

위대한 선교

강원교회는 춘천의 어느 교회들보다도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 유명하다. 차 목사는 십여 년간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겼다. 그 여력으로 개척시 부터 교회 예산의 20%를 선교와 구제비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30%의 선교비를 20여명의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교회는 앞으로 40%를 목표로 그 비율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교회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서 무료로 양말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시작으로, 노인복지기관인 '무지개 동산' 의 산파역할을 감당했으며, 또한 무의탁노인들을 돕는 사역인 베다니 사역을 오랫동안 재정의 십일조를 드려 헌신하여 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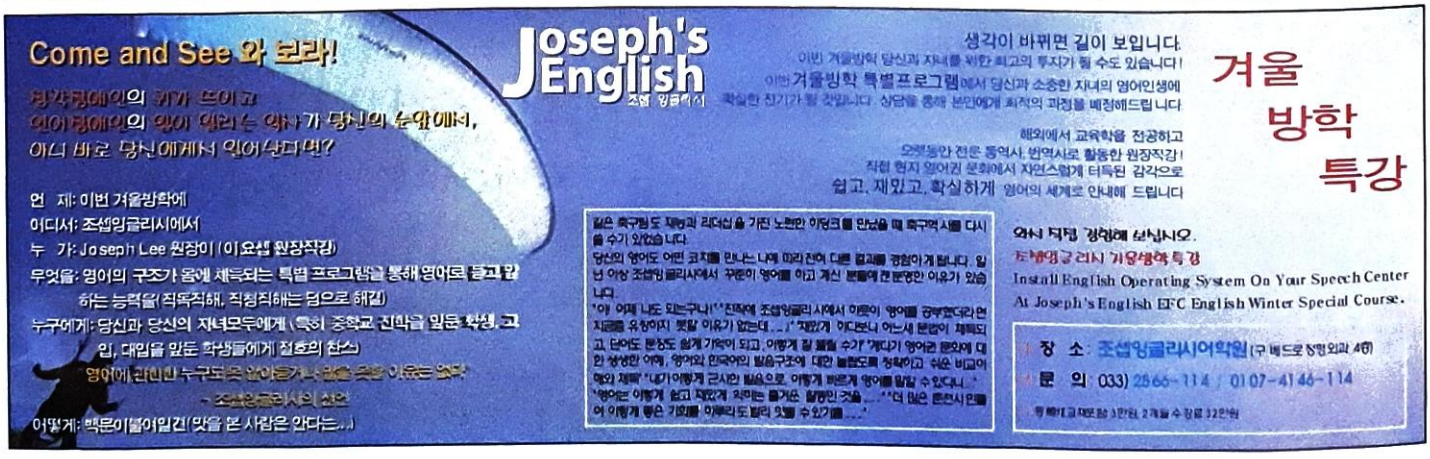
위대한 비전

차 목사는 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를 고민한다고 한다. 기도 중 차 목사는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안식처를 꿈꾸었다. 그래서 홍천에 800여 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장차 은퇴 후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계획이 실현 단계에 있다. 이를 위해 실험적 형태지만 교회 거두리 시설을 전환,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부부를 적은 힘이라도 돕는 사역에 온 교우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거두리 인근지역의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 사역을 실험하고 있으며, 내년 지역아동센타 설립을 목표로 차 목사가 직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늦은 나이에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는 차덕수 목사와 권순남 사모, 그리고 강원교회 형제자매들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진행 조영춘,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 영혼의 양식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라!

(예레미야 애가 3:23)



이 석진 목사
(광진 교회)

이른 아침의 생각이 하루의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CEO인 빌게이츠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한 사람은 하루 종일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루를 맞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허드슨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중국에 가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답하기를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평생을 변함없이 열심히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른 아침 경건의 시간은 악기의 조율에 해당합니다. 악기가 조율이 잘되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을 주님께 맞추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진 하루는 승리가 약속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조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말씀으로 하루를 조율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매일 매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시편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바울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를 잘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기도로 하루를 조율하십시오.

이른 아침의 생각은 하루를 심는 씨앗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바르면 하루의 삶이 풍성해지고, 잘못되면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에 복을 부어 주셔서 옳은 생각, 형통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염려와 실패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축복의 생각이 충만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소망의 기도를 드린 당신은 소망의 하루를 힘차게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알차게 맺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셋째, 찬송으로 하루를 조율하십시오.

아침은 우리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기분 좋고 활기차게 깨어나기 위해서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하루를 열어갈 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병든 생각을 치유하며,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불행의 생각을 행복의 생각으로 바꾸어줍니다. 매일 아침 영감의 찬양, 내 심령을 울리는 찬양, 삶에 용기와 소망을 주는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한 당신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 사색의 창

야웨(יהוה)하나님,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윤 용진 장로
(아세신학교 학장)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 중에 "여호와"의 의미는 가장 모호하다. 이 용어의 히브리 발음을 어떤 이들은 "야웨"로, 어떤 이들은 "야훼"로 적는데 히브리어 후음자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으면 "야웨"가 옳다.

족장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לא שד**, 창 17:1)으로 계시하시며 이삭의 탄생을 필두로 하여 자신의 전능하심을 증거 하셨고, 출애굽시대에는 자신을 "야웨"(**יהוה**, 출 6:2-3)로 계시하시며 언약백성들을 대적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야웨(**יהוה**)라는 하나님의 명칭의 어원은 **היה**(하야) 또는 **הוה** (하와)라는 동사로서 그 의미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다", "...가 있다", "존재하다"(be), 둘째 "...이 되다"(become), 셋째 "살다"(live), 넷째 "발생하다"(happen/take place) 등이다. 그리고 이 품사의 문법적 성격을 분석해보면 동사 **היה**(하야) 또는 **הוה** (하와)의 Qal(일반동사 능동형) 또는 Hiphil(사역동사 능동형)의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야웨"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첫째, 야웨를 일반 동사의 능동형(Qal)으로 볼 경우 야웨의 의미는 "에예 아쉐르 에예"(**היהא רשא היהא**, 14절)이다. 학자들 사이에 이 어구의 번역과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한 한글개역성경의 입장이 무난하다. 이 말씀은 야웨의 신비한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the one who is", "the absolute and unchangeable on", "the existing, ever-living", "creator" 등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계시하신 것은 다른 이방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야웨를 사역동사의 능동형(Hiphil)으로 볼 경우 위에서 언급한 어근 하야(**היה**) 또는 **הוה** (하와)의 몇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야웨의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a) "to be"의 관점에서 볼 때 야웨는 "마땅히 있을 것을 있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을 능히(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란 뜻이다(시 81:10).

b) "to become"의 관점에서 볼 때 야웨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되게 하는 분"(giver of existence)이시다. 즉,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속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출 6:7; 29:45; 사 48:17).

c) "to live"의 관점에서 야웨는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을 가져다주시는 분"(life-giver)이시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d) "to happen" 또는 "to take place"의 관점에서 야웨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삶은 야웨와 맺은 언약을 준수할 때는 행복이 보장되지만 파기할 경우에는 가차 없는 징벌이 그들 위에 내려진다(레26; 신28장).

구약성경에 "하나님"(Elohim)은 2천 수백 번, "야웨"(YHWH)는 6천 수백 번 등장한다(야웨 이레, 야웨 로페, 야웨 닛시, 야웨 체바오트, 야웨 샬롬, 야웨 삼마). 혹시 이제까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대명사로서만 "여호와" 또는 "야웨"로 호칭하였다면 앞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호칭하지 말자.

"야웨"(**יהו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만물의 창조주, 자녀들의 구속주,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우리 존재의 근본이시고,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로서 자녀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책임지시는 인애가 무한하신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웨를 알자! 힘써, 야웨를 알자!"(호 6:3). 아멘!

★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255-1260~1 F. 033)257-1260

나눔과 기쁨 www.joyofsharing.org
사랑의 0.2% 나눔 희망세상 프로젝트
우리동네에서 나눔공동체가 시작됩니다.

♣ '나눔과 기쁨'은
희생 봉사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9일에 결성된 시민법인체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선진국형 복지마을을 구현하고 시민사회에 일조하고자 창립

♣ 민간사회안전망이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동네가 하나 되어 '나눔공동체'를 구축하는 민간자원의 사회안전망운동입니다. 전국읍면동의 지역활동가(나누미)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나눔공동체'를 조직하여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정부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

♣ 함께하는 사람들
최성규(순복음인천교회 담임목사) 손봉호(전 동덕여대총장)
목한흠(국제제자훈련원장) 시감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김준곤(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담임목사)
이승영(새벽교회 담임목사) 김지원(청지번들사무소 고문)

♣ 개인후원안내
우리 동네 나눔공동체를 위해 후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웃을 위해 수입의 0.2%를 나누어 주십시오. 후원해주시는 개인은 <나눔과기쁨>의 회원이 됩니다.
※ 원하시는 분은 CMS(자동이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단체후원안내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과기쁨> 업체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대·중소기업, 식당은 음식, 약국은 약물, 병원은 의료지원, 학교는 지원봉사, 각종사업장은 필요에 따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현금후원이 아닌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안내
후원계좌 농협 301042-51-013803
예금주 (사)나눔과기쁨 춘천지부
※ 춘천시 동나누미(지역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춘천시 나누미 우 귀 성 책사 (사회복지사)
춘천시 후평동 745-9 침금교회
Tel 033) 251-0675 / Fax 033) 251-0675



보물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서기관 같은 사람

(마1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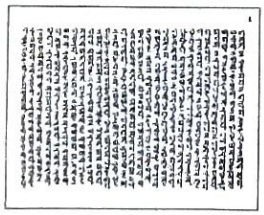
믿음의 기업 성광안경콘택트 박민학 안수집사(성광교회)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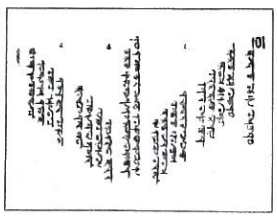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며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참이다(요한 2:1, 12). 비록 육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그렇다(골2:1; 갈 2:10).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것들을 진술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한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눅1:2)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회심하고자 필사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박민학 안수집사가 운영하는 성광안경원(새명동에 위치)의 사무실에는 그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증표인 성경 필사본(필사된 찬송가, 교독문, 담임 목사님 설교와 함께)이 꽂혀있었다.

붓펜으로 세로쓰기한 이 성경 필사는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연회장의 말처럼,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때에 덜 좋은 것을 내어 놓는데"(요2:10) 박 집사는 처음의 글씨보다 나중이 더 예뻤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한 권을 필사하는데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획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마5:18)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 획이라도 틀리면 버리고 다시 쓰고 해서 버린 것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은 된단다.

성경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교리가 참된 교리라면 그 성경 기록들이 섭리를 통해 보존되었다는 교리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롬12:1-2)을 박 집사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하심이 되다

타비다라 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그녀가 자기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만든 겉옷과 의복을 보인 것처럼(행9:39), 그의 사무실에는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보낸 상장과 상패가 즐비하게 있었다. 여러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사정의 이웃을 도와주고,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에게 기쁨을 주며, 가정과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단체에서 봉사한 일들은 효자상, 장관상, 시민상, 공로상 등등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요삼 12).

박 집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선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6:1상)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않으려 했다.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한다. 다만, 알려진다면 다 같이 동참하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사실 그는 모 방송국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에 응한 것은 성경은 보고 싶은데, 눈이 어둡고 돈이 없어 안경을 사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알리고 싶어서였다.

한 열여섯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식에 꼭 가서 꽃과 구두(첫발을 내 딛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의미로)로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 한 명도 돌아와 감사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제때가 되어 거두리라."(갈6:9-10; 살후3:13)는 말씀을 권면했지만 그는 이미 이 길에 서 있었다.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 90세가 되신 당신의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서울에 있는 여동생은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대형버스 한 차로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효자상을 받은 박 집사 자신도 온종일 차로 인근 도시로 모시고 다니면서 유교에 물든 어르신을 "장남인 형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설득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고 한다.

그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한 권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지만, 두 권을 더 필사하여 아들 둘에게 나눠주었다.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처음에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 속에 거하더니 디모데에게도 있게 되었던 것' 처럼(딤후1:5) 박 집사는 그의 믿음을 아버지에게, 그의 자식에게도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록 말씀을 자식에게 주었으리라.

그에게 물었다. 요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아2:10)는 말씀을 그는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취재 이영규, 사진 김미경]





"푸른 꿈" 3주 영어 완성

영어의 왕초보도 좋다. 단어 암기 기피증이 있어도 좋다.
영어를 싫어해도 좋다. 영어 때문에 공부가 싫은 사람도 좋다.
영어가 이렇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체험 할 것이다.
3주로 영어 고민에서 끝 ~ 영어 재미는 시작!!

"초등학교 시절 푸른 꿈 영어로 영어를 쉽게 배운 덕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춘천여고 1년 정 샘-



대 상 : 초교 4학년 ~ 성인까지. 접 수 : 11월 14일까지
강의개강 : 11. 17 ~ 12. 5까지 (월, 화, 목, 금) 오후 4:30, 6:30
특강료 : 10만원(교재비 포함) 011-9797-4217

효행한 인재를 목표로 하는 대영 E.M.I학원" (퇴계 우성 @맑 상가2층)

냉 · 난방 에어컨 세척전문
제일 크리닝
에어컨 세척, 설치, 이전, 유지보수 전문

★ 사업과 동시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정기적인 에어컨크리닝을 통해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 공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교회, 선교원, 어린이집은 50% 할인해 드립니다.

대표 박 종 영(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시 효자3동 37-6
☎262-6761 / 011-566-6769

우리 곁에 있는 山

부를 이름 없는 산

수청령고개


▲ 소양2교에서 본 수청령고개

개요

사진에서 보듯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중에 북쪽으로 보면 춘천댐에서 소양댐까지 이어지는 긴 능선을 볼 수 있다.

500m 전후의 높이로 이어지는 능선이라 주목 받을 만한데, 변변한 이름조차 없다. 산이 많은 고장이라 그렇기도 하고 특별나게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이어져 있기에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다.

산 이름은 없어도 옛날부터 불러오던 고개이름은 남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수청령고개와 더불어 새미고개, 양통고개가 이 긴 능선 중간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 위치를 가름 하게 한다. 현재는 새미고개만 자동차도로로 만들어져서 신북읍과 고탄을 이어주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능선은 춘천댐에서 새미고개까지 5.6km이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은 565m이고, 그 중에 수청령고개가 있다. 그래서 이 능선을 부득이 수청령고개로 부를 수밖에 없다.

등산로



지도를 구할 수 없어서 새미고개에서 오르는 길에 세워둔 안내판을 사진으로 찍어 옮겨 놓았다.

이 등산로는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종주할 때, 거쳐야할 능선이다. 그래서 춘천댐에서 새미고개로 가는 길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춘천댐 쪽에서는 어떤 안내판이나 이정표도 없기에 들머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1 코스 : 춘천댐으로 가다가 407번 도로(화천, 용화산)를 따라 100m쯤 가면 오른쪽으로 가드레일이 끝나고 철망으로 이어진 곳이 첫 번째 들머리이다. 등산로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들어가 보면 길이 보인다. 이 코스는 춘천호를 한 눈에 바라보고 오를 수 있는 코스이다. 가장 일반적인 코스라 할 수 있다.


▲1코스 등산로 입구

2 코스 : 춘천댐으로 가다가 407번 도로로 갈라지기 전에 용산 2리 정거장, 삼거리쉼터 왼편으로 난 밤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오르는 코스이다.


◀ 도로 표지판 오른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서 100m 전진 후에 오른쪽으로 난 길로 오르면 무덤 몇 기와 송전탑을 만나게 된다. 능선을 직선으로 간다고 느껴지는 코스이다. 의암호를 멀리서 바라보고 오를 수 있다. 1, 2코스는 수청령고개에서 만난다.

3 코스 : 새미고개에서 시작해서 춘천댐 쪽으로 할 수 있다. 비교적 높은 곳에서 시작하기에 그리 힘들지 않게 산행할 수 있다. 어느 코스든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청령고개의 매력

1. 춘천호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2. 멀리 의암호를 바라볼 수 있다.


▶ 소양강과 북한강의 합수 지점이 보인다

3. 이 산은 도드라진 정상이 없고 긴 능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이 한 눈에 조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걷다보면 좌우로 살짝살짝 보이는 광경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러므로 낙엽이 지는 가을이 적기이고 초봄까지 산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신북읍 윗 샘밭


▶ 사북면 송암리


▲ 송암마을에서 본 수청령 고개 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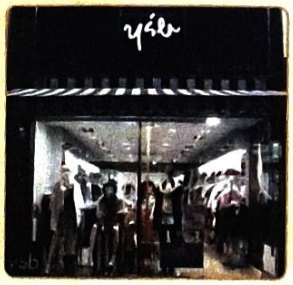

▶ 멀리 화악산과 응봉이 보인다.

4. 등산로를 잘 관리를 하면 사랑받는 산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직은 방치된 것처럼 보여 좀 아쉽다.

[편집위원 고 재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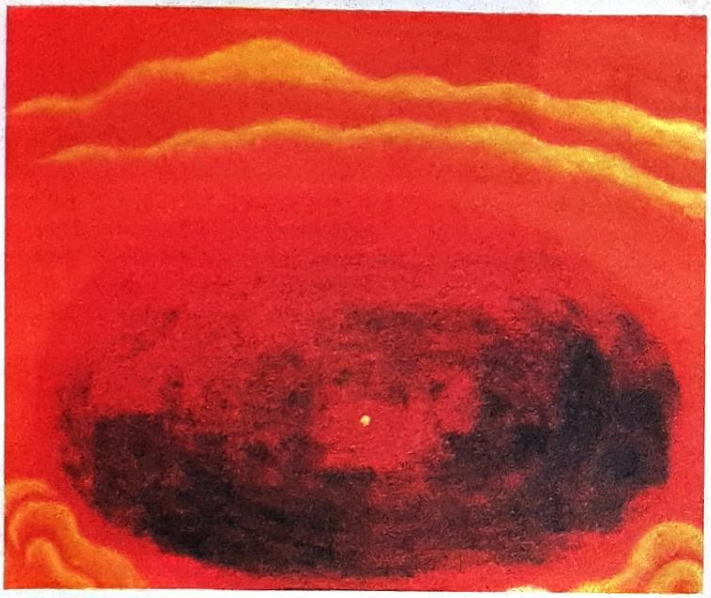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황 지 연 / 내 마음의 왕 / Oil on Canvas / 46X38cm / 1994년

왕을 모신 마음

왕을 모시지 못한 마음은 공허합니다. 왕의 다스림이 없는 삶은 곧 혼돈입니다. 왕되신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작가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세상 곳곳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작과 진행의 비밀을 압니다. 그 나라의 백성에게 허락된 충만과 질서를 누리며 삽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물 위 걸으라 하십니까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물 위입니다
지금껏 살아내어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은
모두 물 위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시던 말씀이
여기에 오게 하신 부름의 길 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징검다리에 섬처럼 붙아집니다

우리 앞에 폭풍우가 다가올지라도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라시던 주님.

우리 모두는 당신 손만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눈 떼지 않겠습니다
풍랑이 심하여 돛이 찢어지고
닻이 떨어질지라도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눈뜬한 믿음으로 영적 부력을 키우겠습니다
모든 영혼을 향하여
세다에 빠져 허우적이는
형망의 영혼들을 위하여
길을 내겠습니다

물 위에 기름이 떠오르듯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아름다운 노식을 덧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지금 물 위에 있습니다

시. 김 홍 주 – • 춘천제일장로교회 집사. 아웨신학교 재정이사. • 민족문학작가회회원. 수향시회장. 민예총 춘천지부장 역임. • 개인 시집 <시인의 바늘>, <어머니의 노래에는 도돌이표가 없다> 등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1

마음의 감기(?) 우울증



이 종 성 원장
(춘천신경정신과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처럼 느끼는 사람부터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모방 자살도 보도되고 있다. 이런 자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울증"이다. 그 이유는 자살의 80% 정도가 우울증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매우 흔한 병으로 6명중 한명은 우울증을 앓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이 걸린다. 40~50대에서 발병률이 높다. 최근엔 청소년이나 노인층에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HO 자료에 따르면 그 중 25%만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 수개월 수년씩 지속될 수 있고, 학업/직업실패, 가족 및 대인관계 악화, 알코올 및 약물 의존, 신체질환 악화, 자살(우울증 환자의 15%) 등의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및 개인적인 손실이 크다.

그렇다면 언제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의심해봐야 할까? 평소와 달리 의욕이 없고, 슬픈 감정에 휩싸이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 정도가 심해진다. TV를 보거나 전화로 얘기하다 괜히 눈물이 난다(우울한 기분). 재미있는 쇼 프로그램을 봐도 사람들이 왜 웃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신문을 봐도 연속극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교회에 출석하기가 싫다(흥미의 상실). 맛있는 게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 혹은 폭식을 하게 된다(식욕의 변화). 많이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쳐지는 느낌이다(무기력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일어나 서성인다(수면장애). 삶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고 모든 게 허망하다(자살사고) 등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울증이 지속되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비틀린다.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이런 불행이 평생 지속되고, 온 세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인다. 우울증상은 상기한 기본적 증상과 함께 연령과 성에 따라 독특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소아의 경우 아이가 산만해지거나,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등교를 거부하고, 배나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거나, 부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사회에 불평불만이 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의 경우 주부건망증으로 알려진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며, 자식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해나간 허탈감을 견디지 못하는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 초조감과 인생의 공허감, 배우자에 대한 의심 등을 주로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노년기의 우울증은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에 걸린 것이 아닌지 불안, 초조해 하며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기도 한다.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는데 정도가 심한 경우 치매로 오인되기도 한다.

우울증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 석 달 안에 호전이 된다(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에서 13개월간 우울증상이 지속된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지치료가 필요하다. 가족들이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 공감을 하는 등 정서적 지지도 필요하다. 약물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약으로 마음을 고치지는 못한다. 약에 의존하게 되어 내 의지를 포기하고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정신과 약을 오래 쓰면 바보가 된다. 감기약처럼 증상만 나으면 안 먹어도 된다.)이 치료를 지연시키고 방해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심한 고통을 더 오래 겪게 만들고 나아가 잘 낫지 않아 만성화를 초래한다. 병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눅5:31)"

다문화시대, 다문화가정 보듬어야...

'한마음열린아버지학교' 춘천에 개설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적응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점들이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교회의 선교적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국내선교가 요원 되고 있다.

이런 가정들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와 한국문화와의 충돌 속에 방황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결혼을 준비하며 과도 지출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나 언어 불소통속에 겪는 자녀 양육문제 또는 부부대화 부제문제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위한 참된 영적 정신적 돌봄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사회 각 분야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통일교 등 이단들의 활동을 보면 최근에는 춘천에도 결혼적령기를 넘긴 시골남성이나 장애인 또는 사별, 이혼 등을 겪고 고생하는 이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외국에서 들여온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순차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여러 사례들조차 보고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춘천에서는 그동안 아버지들의 문화를 변혁하며 참된 아버지 상을 심어 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던 아버지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교를 개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지부의 최정용 총무를 통해 교회가 협력할 부분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강

(사)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간 춘천인형극장 건너편에 있는 강원도청소년수련관에서 이민자가족 아버지들을 모시고 아버지학교를 개설한다. 외국인 아내, 또는 남편을 둔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 아버지 학교는 다른 환경에서 가정문화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어가려 노력하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며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번 아버지학교는 전국적으로는 진북 김제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시청 여성정책과에서도 관심과 함께 재정적 후원을 해주었고, 또한 춘천이민자가족센타(흘트아동복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자 섭외를 도와주면서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아버지학교에는 지금 현재 90명 가까이 등록을 했다.

아버지의 정체성 확립

이번에 참여할 다문화가정 아내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조선족,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나라에서 왔다. 이들은 대부분 언어사용의 문제에 대인관계가 없이 남편에게 의존해 있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속에 다각적인 문제를 대하면서도 적절한 상담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

이번 아버지학교에서는 "종종 아내들을 돈을 주고 산 사람" 이라는 시각이나 아내의 이색적인 다른 문화들의 문제들 속에 당황하며 힘들어 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오직 자신 하나만을 믿고 이국땅으로 와준 "사랑하는 아내"라는 이미지로 바꿔주고 싶은 게 아버지학교의 포부이다.

이번 아버지학교는 여느 때와의 아버지학교와는 다르게 찬양과 기도, 프로그램사이에 주님, 할렐루야 등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열린 아버지학교"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특별히 안 보이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를 한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나 교회들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글. 춘천지부 총무 최 정 용]



예 향

새벽 종소리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은 역사가 50년이 넘고, 직원만 해도 1,000여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상징은 종(鐘)으로서 여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대문 새재 시장에 콩나물 장수를 하는 신앙이 깊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교회에 들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일군이 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제약회사를 차린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회사 심벌마크를 '종(鐘)'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바로 새벽기도의 응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편집위원 최상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교회도 얼굴이 있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 영 춘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고 재 만
김 춘 배 이 관 형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웃음은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지향적 사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웃음치료사 1급, 치료레크리에이션 1급 강사 과정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08년 11월 1일 ~ 11월 21일
◆ 대 상 : 대학생, 일반인, 주부, 직장인 누구나
◆ 수강일정 : 2008년 11월 22(토), 29(토), 12월 6(토) 총 3일간 09:00-17:00
◆ 수강장소 : 광장교회(요지동649 팔호광장 옆)
◆ 강 사 : 국제레크리에이션협회장 이광재 박사 외 다수
◆ 수 강 료 : 25만원
◆ 입금계좌 : 농협)179-12-076681 예금주 : 박명순
◆ 문 의 : 웃음치료춘천시지회 011-9798-8741(서종신 장로)
◆ 활동사항 : 자격증 취득 후 교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 기업 직원연수 등에서 즐겁고 유쾌한 웃음치료 1급 강사활동 및 본회와 함께 자원봉사활동기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사)국제레크리에이션협회 웃음치료춘천시지회

춘천 효신대안학교 학생모집

효신상업전수학교, 효신고등공민학교의 중등교육 역사를 갖춘 효신선교회가 탈학교 청소년을 위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안교육을 제공합니다.

♠ 대 상 : 일반학교를 중퇴한 중 · 고등학생
♠ 교육내용 : 프로젝트수업, 특별활동, 신앙활동, 검정고시교과 등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교육함
♠ 입학사정 : 학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학생과의 면담으로 결정
※ 인턴실습^모집(2명) -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실 예비교사
※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봉사자를 찾습니다!
교과 강의, 동아리활동, 특별활동지원, 각 분야전문인(멘토)으로서 청소년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보람을 함께 하실 분



♠ 문의 : 033) 254-3205 홈피: http://www.hyoshin.or.kr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We Never Forget You)'

춘천사회복지엑스포 6일간 3만5천여 명 방문에 7억여 원 후원, 희망의 촛불 밝혔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확인하는 계기 마련



지난 10월 18일 개막한 2008춘천사회복지엑스포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란 주제로 6일간 전시회를 중심으로 전국지역사회복지대회 등 7개 행사와 30여회가 넘는 공연, 바자회가 열렸으며 춘천지역 내 47개 사회복지단체와 10여개 공공기관이 상설 참가했다.

23일 폐막된 2008춘천사회복지엑스포는 빈부, 장애여부, 나이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 가장 소중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엑스포장을 둘러본 방문객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웃이 항상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게 됐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교육장의 장'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이번 사회복지엑스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획돼 전례가 없었던 데다 일반에 생소할 수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준비와 진행, 참여 열기 등 모든 면에서 기대 밖의 성과를 낸데 대해 폐회사를 통해 "걱정도 많았지만 코흘리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혹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까지 모두 다 한마음이 돼 '다함께 따뜻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촛불을 밝혀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항상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사실의 확인은 공동체의 힘으로 작용해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기부문화를 상시화, 제도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랑의 손길, 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더해

이번 엑스포는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학술행사, 나눔의 기쁨과 축제의 즐거움이 있는 공연과 전시, 바자회 등의 이벤트를 마련, 내용이나 진행 면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낸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엑스포조직위가 폐막일인 23일 오후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엑스포 행사장 방문객수는 3만5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방문한 꼴이다. 이번 엑스포 행사장에는 춘천지역 기관, 단체뿐 아니라 읍면동 자생조직, 학교, 군부대 등 6백여 개가 넘는 단체가 행사장을 찾았다. 또 원주시, 속초시 등 도내 자치단체는 물론, 경기도 가평, 경기도 군위군 등 도내,외 10여개 자치단체들의 견학방문이 이어졌다. 특히 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 각종 단체와 개인 참여로 이뤄진 자원봉사자 1천여 명은 행사장 안내에서부터 홍보부스 운영, 바자회 상품판매, 행사장 뒷정리 등 궂은일에도 열성적으로 참여, 행사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이 됐다.

후원, 결연 신청도 당초 기대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보였다. 조직위는 당초 엑스포 취지를 모금행사에 두지는 않아 후원금 신청 규모가 2~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엑스포의 취지에 공감한 개인과 단체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7억여 원이 넘는 후원금이 마련됐다. 연중 상시로 일정액을 후원하는 계좌가입의 경우 3천4백여 건에 2억8천만 원이 신청됐으며 일시후원금은 협찬금을 포함, 6백80여건에 4억2천여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후원금 대신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한 사람도 4백53명에 달했다.

이번 후원계좌 신청에는 어려운 생활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후원자로 나선 경우도 많아 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유명인사들의 소장품과 각 단체들의 기증품을 판매한 바자회를 통해 1천7백여 점이 팔려 2천2백만 원이 조성됐다.

복지도시의 모델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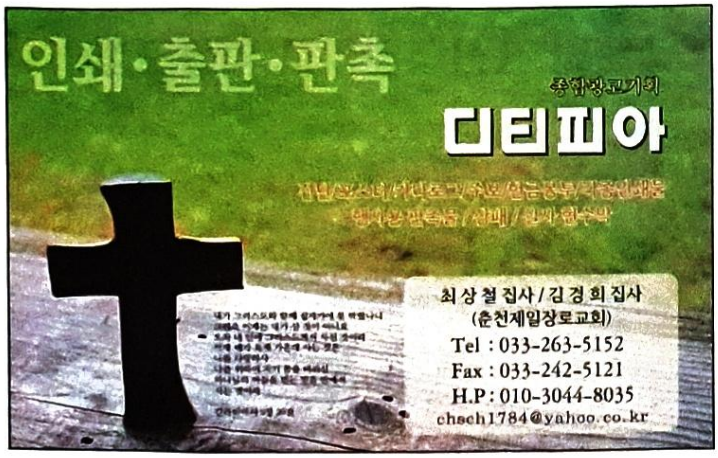
이번 엑스포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수확은 선진복지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 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복지전문가들은 엑스포 행사장을 둘러본 후 행사 준비와 진행도 훌륭하지만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엑스포 개최, 전국지역사회복지대회 등 전국 규모 행사와의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도시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정양지 엑스포조직위원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일반 방문객들은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어려운 분들은 시민들이 우리를 위해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시민과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이번 춘천사회복지엑스포가 23일 폐막되었다고는 하나 "내미는 손과 잡아주는 손", "고단한 손과 따뜻한 손"이 만나는 후원신청서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관련 서식은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하여 춘천시청 복지과에 전달해주면 된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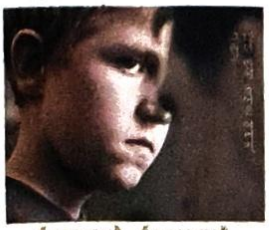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6>

리 턴 (The Return, Vozvrashcheniye)







성경의 내용이나 말씀 및 메시지를 그대로 옮기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만든 작품만이 기독교 영화인 것은 아니다. 작가나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너무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영화들 중에 더욱 깊은 내적 의미에서 더 많은 진리를 내포하는 영화, 곧 메타포어로서의 담론으로 풀어내는 귀한 작품이 간혹 발견된다. 이미 소개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도 그런 범주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성도의 생활을 조명하면서 그 속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면 지금 소개하는 영화는 그마저 생략하면서 더욱 차원 높은 묵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확실히 낯설다. 그러나 참 매혹적이기도 하다. 2003년 제60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과 신인감독상을 동시에 거머쥔 러시아의 신예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의 작품이다. 타프코프스키 등 걸출한 감독을 배출한 러시아 영화는 깊은 사유(思惟)로 이끄는 명상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영화 역시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린 두 형제 앞에 나타난 아버지, 12년 만에 돌아와서 그 존재감마저 희미한 채 서먹한 상황에 처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그 재회와 화해의 과정을 그린 이 영화의 깊은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일견 부성애의 갈등을 그린 영화로 보기 쉽다.

일주일(7일)이라는 상징적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여행을 떠나는 두 아들. 형은 순종적인데 반해 동생은 자못 반항적이고 쉽게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아이들을 끌고 먼거리로 나서는 아버지의 의도가 궁금한 가운데 결국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결말로 치닫게 되는데...

영화평론가 백건영씨는 이 영화의 아버지를 신약과 구약, 곧 야웨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메타포어(은유)의 장치로 보고 있으며 귀환한 아버지를 로고스(말)로 육화한 야웨의 상징적 이미지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묻고 있다. 그 귀한 평론의 전문을 소개하고 싶은데 지면의 한계 상 이 정도로만 일단 언급해도 이 영화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른 영화에 비해 잔잔히 물 흐르듯 전개되는 이야기 구조로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상당한 몰입 속에 빠지게 하는 감독의 재능이 탁월하다. 색감 좋고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미도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탄탄하게 해 주고 있다. 참고로 한국영화 〈리턴〉과 또 다른 헐리우드의 공포물 〈리턴〉 등 동명작품이 있으니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12세 이상 관람가 109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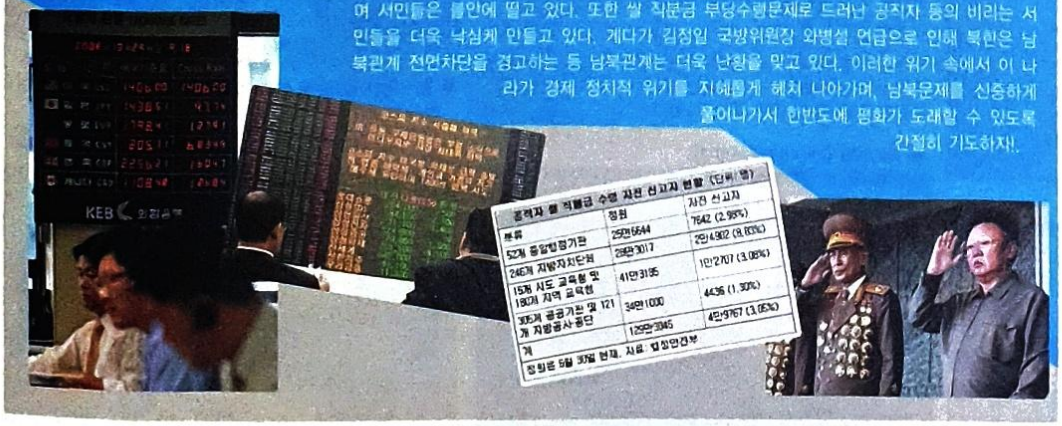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세계금융위기 속에 휘청 이는 한국. 계속되는 주가하락, 환율상승으로 경제는 흔들리고 있으며 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문제로 드러난 공직자 등의 비리는 서민들을 더욱 낙심케 만들고 있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 언급으로 인해 북한은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는 등 남북관계는 더욱 난항을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경제 정치적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아가며, 남북문제를 신중하게 풀어나가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우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외환은행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0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광명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베드로순복음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임성결교회
새순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양의문교회	예수촌교회
예당교회	주영광교회
주항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한빛장로교회	평화실로암교회
춘천외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강선희	강옥자	강태랑	김기태
김김홍	김리현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일	김요섭
김은선	김재철	김재홍	김종찬
김진삼	김태숙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미호숙	류재웅
배진철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제지	박종근	박현숙	변춘지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안현주
양금환	엄팔남	오의석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조
유성현	유영호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우식	이병연	이병일
이상도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속
이은수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장기남
장기영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창순	전영득	정규시
정은하	정재균	정재호	정재현
정주연	정진복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주승희	지경희	최병숙	최상호
최율용	최종덕	최치광	최혜영
한성아	한희현	함종현	함학균
허미정	허순영	허언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황병천	황은주
황정섭	황진석	홍택기	

[2008성시 주일지키기 후원명단]

늘사랑교회 소양제일교회
일신교회

청국장 환
인진쑥 환
뽕 잎 환
홍화씨 환
각종건강환 일절
미싯가루 등 약초제분 일절
창성제분
건강식품 / 제환 / 제분
▷ 전화 상담 환영 "고객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 전국 택배 가능 작은 주문도 정성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 위치 : 퇴계동 남춘천역 앞 남춘천파출소 바로 옆
☎ 033)255-0042, 017-371-4941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버지학교 설립이사(스텝)
(서울동부13기수료)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보입니다

사공 정 목사
춘천중앙장로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배운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거듭남을 감사하고 죽음까지도 겁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 감사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보입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허영심만 보이고,
남이 잘되는 것만 보이고 사치,
낭비만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배울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땡큐(감사)입니다.

1년 중 최고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매국에서 일어난 토픽꺼리 중에서 70만 달러를 가진 부자가 겨울 난방비 아끼려고 냉방생활하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베개 밑에 20만 달러 현금이 있었습니다. 주어 본적도, 써 본적도 활용해 본적도 없이 그냥 얼어 죽었습니다.
돈 있다고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일부를 아낌없이 나누는 감사절이 가장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연도행회
1) 새소식반 강습회
일시: 9. 22 ~ 11. 17 매주 월요일 오전10:00 ~ 1:00
모집: 석사감리교회 1층 유치부실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에스컴
1) 청소년 연합찬양집회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11월 15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강사: 길근수 목사(세인교회)
문의: 244-5400, [club.cyworld.com/yescomelove]
신유정 010-5422-2321 한승연 010-3369-699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C.C.C. 창립50주년 감사예배
일시: 11월 1일(토) 장소: 이화여대 대강당
2) 부모초청효도잔치
일시: 11월 8일(토) 장소: 춘천ccc회관
3) LTC 전도훈련 초 · 중 · 고급
일시: 11월 10일(월) ~ 12일(수) 장소: 춘천ccc회관
4) 추수감사채플과 순예술제
일시: 11월 21일(금) 장소: ccc회관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천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rn]

◆ IVF
1) IVF 전국 총회 및 비전의 날
일시: 11월 1일(토) 장소: 서울 홍성교회
2) 연합 RUN 중보기도회
일시: 11월 14일(금) 오후7시 장소: 춘천 IVF회관
3) 제자학교 · 선교학교 수료식
일시: 11월 24일(월) 오후7시 장소: 춘천 IVF회관
문의: 252-5200

◆ JDM
1) 가족의 밤
일시: 11월 7일(금) 오후7시 장소: 온누리교회
2) 고 3을 위한 위로 집회
일시: 11월 27일(목) 오후7시 장소: 동부장로교회(예정)

3) 2008년 개척을 위한 일일찻집
일시: 11월 29일(토)
장소: 한림대 학생회관 3층(예정)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반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11월 3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인도: 박민하 선교사(GBT대표)
말씀: 이재진 선교사(국제본부성가쫌)
2) 11월 11일(화) 세계 기도의 날
일시: 오전10:00 ~ 오후4:30 말씀: 권성찬 선교사
장소: 동도교회(청량리역 근처)
3) 위클리프스쿨
일시: 9월 22일~11월 24일 매주 월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4) GBT 국내사역자전략회의
일시: 11월 25일 ~ 28일
장소: 대부도 새중앙 수양관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nchec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봄남개위생선교단 모임
1) 토요워십댄스반 개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한 달에 2번)
일시: 11월 3일, 17일, 오후7시
장소: 이부이기는교회(cc불림장 뒤)
문의: 박유식 010-9368-9856

◆ (재)기독교한국침신선교회
1) 춘천 대안교육 학생모집
"적성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미국의 메트스쿨 같은 대안학교를 지향"
대상: 중고교생

2)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인 모집
청년봉사자: 스포츠, 동아리, 음악, 영어, 상담 등 청소년을위해 함께 활동해주실 기독 청년.
문의: 254-3205 / H.P. 011-9737-1919

◆ 춘천기독한국무용선교단 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닭갈비 4층
문의: 춘천기독한국무용선교단 010-3180-533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인터콥 춘천지부
1) 새로운 선교적 예배 - 월드미션 집회
일시: 11. 17(매월3째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광원교회(애막골 진흥a상가 맞은편)
문의: 송봉춘간사(010-9125-5894)

◆ 춘천교회 나눔의 집(노인요양보호시설)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쉼터"
대상: 65세 이상 할머니
문의: 244-1913, 011-367-4426 (천전감리교회 이복규목사)

◆ 강원도기독교미술인연합회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회 장: 김명숙 019-432-5035
사무장: 정영희 010-7707-2225
전시안내 및 장소: 12월 12일 ~ 18일, 춘천미술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총회
일시: 11월 7일(금) 오전 11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문의: 256-1260

◆ 춘천기독교연합회 · 교역자연합회 통회
일시: 11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봉정장로교회 문의: 256-1260

◆ 토씽잉 글리시 영어연극단원모집
영어를 좋아하고 연극에 달란트를 가진 남니노소, 재능과 열정을 가진 신앙인으로 열린 마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
특전: 연극을 통한 영어소통 능력 체득 영어연극, 뮤지컬공연
(정기, 수시, 순회), 영어연극을 통한 선교활동
문의: 유선영 010-6828-6239, Esther 010-7414-6114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음금고 옆]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배테랑의 상담하세요.
친절, 구석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10월 6일(월) 오전11시 사무국 월례예배를 드리고 춘천 성시화와 연합선교대회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신성균 목사(열린교회)는 이사야 62:1~7절 말씀으로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게 하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말고 기도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지금까지 기도한 춘천 성시화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 춘천와이신협이사장기 축구대회



제2회 춘천와이신협이사장기(이사장:심인섭장로)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10월 3일(금)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12개 교회가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다. 교회간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와이신협이 개최한 본 대회에서 춘천제일장로교회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동부장로교회, 3위 소양성결교회가 차지했다.

■ 성시신문 편집위원회의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최영조)는 10월 15일(수) 오후2시 성시본부에서 11월호 기사방향을 논의하였다.

■ 선교대회 평가회 및 임원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는 10월 16일(목) 오전6시30분 연합회에서 연합선교대회 평가회와 함께 총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속독법 6일 캠프



속독법 6일 캠프가 인재양성연구소(소장:정진화)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 협력으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촌 유스호스텔에서 교회교육의 일환으로 주목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춘천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춘천성시화를 위한 2008 연합선교대회'가 10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부흥성회와 목회자세미나, 성시비전포럼, 중보기도회 등으로 도시의 회복을 위한 부흥의 불을 지폈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가 주최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CBS춘천방송이 공동주관한 이번 선교대회에는 6일부터 8일까지 오후7시 평화감리교회에서 강사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담임)의 말씀잔치가 열렸다. 오 목사는 "교회의 영광", "가정의 회복", "성도의 무장"이란 제목으로 도시 복음화와 이단척결, 영적 권능의 회복에 대해 뜨겁게 설교하였다. 또 7일 목회자세미나에서는 새로남교회의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정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8일 오후2시 "성시비전포럼"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운동'을 주제로 열렸다. 성시화운동의 첫 발상지인 춘천에서 대구·대전·부산·인천지역 성시화운동본부가 한자리에 모여 성시화과제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큰 의의를 가졌다. 성시화운동에 홀리클럽을 단생시킨 전용태 장로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연합회와 성시본부는 춘천지역의 영적상황을 소개하는 책자 〈거룩한 도시, 춘천을 품는 기도 가이드〉와 〈춘천영적지도〉를 제작했고, 9일 저녁 유스아트홀에서 거룩한 도시를 향한 중보기도회를 가지는 등 도시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성시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권기호목사) 2008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주일)부터 29일(수)까지 춘천동부교회에서 열렸다. 26일에는 종교개혁주일 기념 연합예배로 강사 황창기 목사(전 고신대 총장)가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3일간의 부흥성회에서는 강사 이규왕 목사(수원제일교회)가 "축복의 통로-믿음, 기도, 연합"을 주제로 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에 대해 전했다. 28일 김휘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찬양세미나, 29일 목회자세미나 등 연합과 부흥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집회에 드려진 헌금은 미자립교회와 목회자 자녀 장학금으로 쓰이게 된다.

■ 해비타트 춘천지회 복지회관 건립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는 10월 18일(토) 김창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복지회관 기공예배'를 드린 후,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복지회관은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무주택자들의 안식을 위한 주택 2동(8세대)을 완공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와 함께 11월 14일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입주식을 갖는다.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은 아동안전교육의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춘천지역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은비의 파란마음"이란 아동학대예방인형극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 내 영유아 아동들에게 나의 몸의 소중함과 소중한 나의 몸을 스스로도 지킬 수 있어야 함을 알리는 본 11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성시화를 위한 성시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한균)는 10월 27일(월)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임원예배를 드린 후 나라의 경제회복과 지도자들을 위해, 춘천의 시정과 춘천기독 기관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장로연합회 정기총회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회장:마철규)는 10월 30일(목) 오후7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제22차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를 이룹시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총회에서는 이영식 장로(중앙감리교회)가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감사에 이명륜 장로(명성감리교회)와 허민구 장로(제일감리교회)가, 총무에 김종렬 장로(신성감리교회)가 각각 선출되었다.

취재 · 김 미 경

2008 말씀과 치유 연합성회



말씀집회 / 도 준 순 목사(서울세광교회)

치유집회 / 손 기 철 장로 (온누리교회,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학장)









◆ 일 시 : 2008년 11월 30일(주일)저녁 ~ 12월 4일(목)저녁
새벽 5시, 오전 10:30, 저녁 7시
말씀집회(주일~수요일) / 치유집회(목요일 저녁)

◆ 장 소 : 평화감리교회(후평동 버스종점)

◆ 주 최 :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북지방 선교부

◆ 문 의 : 010-5373-5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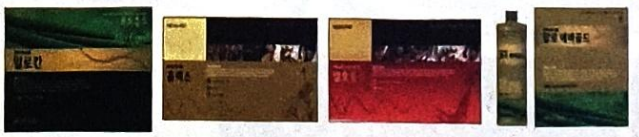
beautiful life story
NEWLAND
(주) 뉴랜드 알로에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을 행복하게!!

멜로즈 MELROSE 알로에의 싱그러움이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함을 더해주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원료 추출물을 통해 몸속 깊은 곳에서 활기를 되찾아 주는 건강식품으로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효도선물입니다.



대표이사 이 판 호 권사 (석사교회)

춘천본부 강 향 숙 집사 (일심교회)
춘천동부 박 경 미 집사 (광염교회)
춘천서부 권 용 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춘천남부 황 효 순 집사 (신성교회)

춘천시 석사동 796-3 (호산부인과 옆) ☎264-2900~3

춘천성시화운동본부